

광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추진

미디어아트 부문, 이르면 이달 말 신청서
서울·이천 이어 3번째...내년 심사·실사

광주시가 이르면 이달 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미디어아트(media art) 부문 신청서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디어아트 부문에 가입된 도시는 프랑스 리옹 1곳으로 광주가 선정되면 세계 2번째다.

가 미디어아트의 원천이 되는 시가, 회화, 장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다 관광업, 디자인산업, 첨단가전산업 등 주력산업과의 연관성도 높아 미디어아트 부문을 선택했으며,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전,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등 이벤트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어 유네스코 측이 가입 기준으로 하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 ▲도시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 ▲도시구성원의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성 등과도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초 유네스코 본부의 서류심사와 실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에도 착수했다.

는 유네스코가 지역의 창조 문화산업 발전과 사회·경제적 경쟁력을 강화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 도입했으며 문학, 공예 및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영화 등 7개 부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나는 더위사냥 광주·전남 낮 최고 기온이 31.6도까지 올라간 5일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의 음악분수에서 한 어린이가 시원한 분수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 LED, 베니스 뱃길 밝힌다

TD엔지니어링社 伊업체와 유도燈 수출협약

광주에서 생산된 태양광 LED 제품이 '물의 도시'인 이탈리아 베니스의 뱃길을 환히 밝혀 줄 전망이다.

유럽 현지에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운태 시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광주 소재 기업인 'TD엔지니어링'사의 태양광 LED 유도등을 이탈리아 베니스의 8개 섬을 연결하는 뱃길 유도등으로 사용하는 '베니스 뱃길 LED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TD엔지니어링'(대표 박신남)과 이탈리아 'LAB 23사'(대표 마르코 비반)간에 200만달러 수출 MOU를 체결한 이후 광주시가 'LAB23사' 및 '체네 인터내셔널사'(대표 알렉산드로 주인)에 사업 참여 방안을 꾸준히 제의해 얻어낸 성과다.

이탈리아측은 'TD엔지니어링'의 태양광 LED 유도등이 설치가 간편하고, 배터리 충전 및 LED조명 기술력이 우수해 뱃길 유도등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LAB23사'에서 디자인을 맡아 유럽 전역으로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이 광주를 방문하기로 했다.

또한, 잦은 안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이탈리아 '베네토 고속도로'(이탈리아 베니스와 밀라노, 독일, 오스트리아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에도 TD엔지니어링의 태양광 LED표지등과 유도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추진

되는 특별 프로젝트에서 총당된다.

강운태 시장은 "베니스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체를 통해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시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광주 LED 제품의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광주비엔날레(이사장 강운태)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 모나코 호텔에서 (재)세계비엔날레와 MOU를 체결하고 '제1회 세계비엔날레 대회'를 내년엔 광주에서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학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알림

제38회 光日 보훈대상 영광의 수상자들

13일(월) 오후 3시 30분
정부광주합동청사서 시상식

광주일보사는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38회 光日 보훈대상 시상식을 13일 오후 3시 30분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갖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
- ▲김생현씨(공상군경 6급·65·광주 광산구 산월동)
- ▲강정례씨(전상군경 유족 처·77·광주 서구 화정4동)
- ▲박순금씨(순직군경 유족 처·73·광주 남구 백운동)
- ▲노창영씨(전몰군경 유족 자·69·광주 동구 계림2동)
- ▲이용주씨(무공수훈 회랑·84·광주 광산구 송정2동)

| 주최 | 光州日報社 | 후원 | 광주지방보훈청

유럽 공포 장출혈성대장균 7년전 전남대병원 첫 발견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EHEC O104:H4)으로 인한 환자가 2004년 한국에서도 발생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5일 화순전남대병원 배우균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전남대병원 장희창 감염내과 교수에 따르면 2004년 7월 말 심한 복통과 설사·혈변 증세를 보인 29세 여성이 병원에 이송돼 왔다. 이 환자는 급성 신부전 증세와 용혈성 빈혈·혈소판 감소증을 보여 치명적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으며, 대변에서 O104:H4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 환자는 혈장 교환과 혈액투석 치료를 4주간 받은 뒤, 완치됐다.

배 교수는 이 환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O104:H4 용혈성요독증후군 관련 논문을 썼고, 논문은 2006년 '연

세 메디컬 저널'에 게재됐다. 이 사례가 O104:H4 발병으로는 세계 최초로 알려지면서 독일은 물론 세계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배 교수는 지난 3일 독일의 유명 의료 저널로부터 2004년 당시 입원했던 환자의 발병 상태와 치료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3일 제1군 법정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긴급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독일발 항공기(하루 평균 4편) 탑승객에 대해 설사 증상 유무 등에 관한 설문조사 시작했다. 의심 환자가 발견되면 군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기로 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MUSEO 뮤제오

광주를 리더하는 특별한 분을 위한 약속-

이태리의 정통 명품 수입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은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품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신세계백화점 금호점, 금호점, 뮤제오, 동성역 동성교차로, 회정역, KB국민은행, 동성동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보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자날레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